

대출 상환 막막했는데...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숨통'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 한은 광주전남본부, 최대 5억 지원·저신용자 금리 지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내년 3월 유예 조치가 끝나더라도, 대출자들은 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유예했던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정책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이번 유예 조치는 지난해 4월과 올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상환 유예는 각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신탁·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모든 금융권에서 추진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으로, 한은 광주전남본부 총 지원한도는 6500억원이다.

대상은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은행 대출을 받은 광주·전남지역 서비스업에 영위 기업·자영업자

이다.

한은은 이번엔 지원 대상을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큰 서비스업 영위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유흥주점이나 금융·보험업, 외국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은은 대출 실적의 최대 50% 해당액을 은행에 연 0.25%로 지원한다. 신용등급 6~10등급의 저신용자는 대출 실적에서 최대 75%를 저금리 지원한다.

은행 대출실적에 대한 지원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은행별 대출실적에 비례해 배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기로 한 데 이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 등의 연장 시행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

억원으로 늘었다. 개인사업자에 더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특례보증은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낮은 보증료와 연 2.6% 안팎의 금리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특례보증 대상을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자에서 간이과세자 가운데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원자로 넓혔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가운데 반기 매출 감소 검증이 안 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반기 매출이 10~20% 감소해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

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에 게도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했다.

앞서 1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금융업권 협회장들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조치 이후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추진 방안의 하나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통상 3년)은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거치기간은 대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한편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이 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1년 반 동안(2020년 1월~2021년 6월) 신규 대출 받은 금액은 11조36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이 아닌 2금융권 대출액은 5조7231억원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5만원권' 발행 비중 80% 돌파

광주·전남 추석 4681억 발행...1만원권 17.4% 그쳐

올해 추석 연휴 전 광주·전남 5만원권 발행 비중이 처음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만원권 비중은 지난해 명절보다 크게 줄면서 20%를 밑돌았다.

2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 10일 동안(9월6일~17일) 광주·전남지역에 공급된 화폐 순발행액은 5482억원으로, 전년 명절

(5109억원)에 비해 7.3%(373억원) 증가했다. 순발행액은 발행액에서 금융기관에 환수된 금액을 뺀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발행액은 5814억원었고, 같은 기간 332억원이 거둬졌다.

광주·전남 전체 발행액 가운데 5만원권은 80.5%에 달하는 4681억원으로 집계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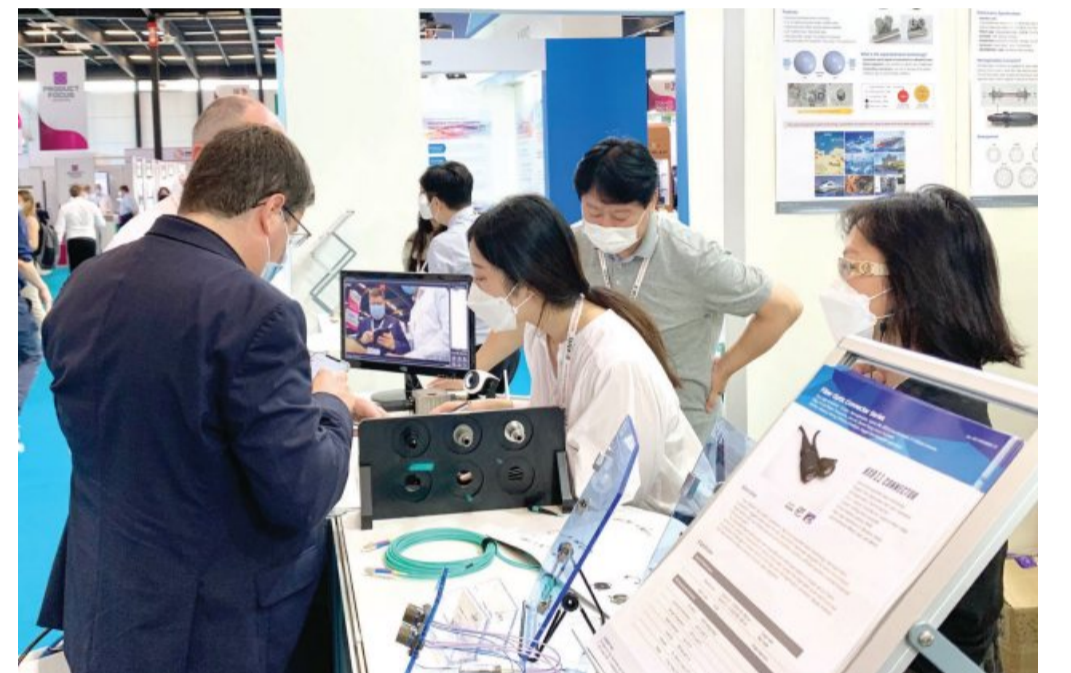
올 추석 5만원권 발행액은 4681억원으로, 전년(3642억원)보다 28.5%(1039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 비중(67.2%)에 비해서는 13.3% 포인트나 늘었다.

추석 연휴 전(10영업일) 5만원권 발행 비중은 지난 2016년 67.5%(발행액 3850억원), 2017년 72.2%(4968억원), 2018년 76.1%(4731억원), 2019년 76.2%(4390억원), 2020년 67.2%(364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올 추석 1만원권 발행액은 100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3%(-654억원) 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유럽 최대 규모 광ICT산업 전시회인 'ECOC 2021'에서 공동관을 꾸린 한국 기업들이 현지 바이어를 상대로 국내 광통신융합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제공>

광산업진흥회, 수출상담 2637만달러 성과

유럽 최대 'ECOC 2021' 참여...11개 기업과 공동 부스 마련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 광ICT산업 전시회 'ECOC 2021'에서 수출상담 2637만 달러와 구매계약 140만 달러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진흥회는 이번 전시회에 한국 기업 11개사와 함께 공동관을 구성, 국내 광통신융합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현지 바이어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등 유럽 지역 판로개척 및 광통신 분야 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ECOC 2021 전시회는 광케이블, 광케이블 및 접속함, 광트랜시버 변환기 등 광통신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광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주력으로 전시해 유럽 광통신·통신 ICT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했다.

진흥회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외 진출 기반이 약한 국내 기업을 위해 해외의 유망 전시회 공동관 운영 및 개별 참가 지원 등 수요를 반영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유럽 현지에서 기업과 상담했던 해외바이어를 오는 11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2021 광융합 산업 로드쇼'에 초청해 성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조용진 상근부회장은 "전시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매출 효과 및 수출 확대를 기대할 것"이라며 "향후 기업들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 유망전시회 공동관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범죄 피해자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오른쪽)은 최근 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을 찾아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했다. <광주은행 제공>

원가 반영 vs 물가 안정 전기로 8년만에 오르나

한전, 오늘 인상여부 발표

한국전력이 23일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인상이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에도 코로나19 사태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2개 분기 연속 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은 지난 2분기 7648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6개 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다. 고유가료 한전의 2분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전년보다 1조2868억원(8.1%)이나 증가했지만, 전기요금은 올리지 못해 전기판매수익은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분기별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접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다. 만약 4분기에 kWh당 3원 인상된다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된다.

한전은 오는 10월22일까지 '원가연계형 요금제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추첨(22년 1월 예정) **행사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자금자동이체, 신탁 공제가입, 공과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탁계좌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저축보통예대상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금은 신탁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죽로 36번길1)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신로9번길20-2)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8)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8)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신원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